

**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**  
**장애인시민본부 보도자료**  
 (본부장: 서미화 의원)

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일시 | 2025. 5. 27.(화) | 담 당 자 | 노혜담 선임비서관<br>(02-784-6441) |
| 배포일시 | 배포 즉시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 재활 · 희귀질환 · 장애 관련 5개 단체와 정책협약 · 지지선언 · 정책제안 잇따라 개최

**“국가가 책임지는 재활 · 희귀질환 · 장애정책 지금이 전환점!”**

-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(본부장 서미화)는 26일 오후,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재활 · 희귀질환 · 장애 관련 5개 단체와 정책협약 · 지지선언 · 정책제안식을 연속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.
- 한국재활치료기관협회와 대구치료교육기관연합회는 ▲재활사 공적 법인 설립, ▲재활 전문 교육훈련 기반 마련, ▲당정 협의체 구성 등 제도화를 위한 협약사항을 담아 협약서를 전달했다. 지지선언문을 통해 “이재명 후보가 사회적 약자의 현장을 이해하고, 재활복지의 질적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임을 확신한다” 고 밝혔다.
- 대한재활의학회는 ▲회복기 재활병원 중심의 전달체계 확립, ▲중증 재활환자를 위한 전용 수가체계 마련, ▲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성과지표 도입 등 의료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. 이어 윤준식 이사장은 “재활의학은 생존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의료로, 국가적 투자와 제도화가 시급하다” 고 말했다.
- 이어진 한국시신경척수염환우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는 ▲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의 급여 기준 완화, ▲허가된 신약 치료제의 1차 치료제 사용 허용 등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제안됐다. 이날 이동환 이사는 “신경척수염의 조기 치료와 선택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” 고 당부했다.

- 마지막 순서인 한국농아인협회 정책간담회에서는 ▲농아인 컴퓨터 설치 및 운영, ▲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한 수어통역 자격제도 개편 등 농인의 소통권과 문화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제안됐다.
- 서미화 본부장은 “재활과 희귀질환 치료는 물론 농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고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전환점은 바로 지금”이라며 이날 함께한 단체들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.
-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간담회를 마련하여, 장애인의 삶과 권리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‘진짜 대한민국’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단체들과의 정책 연대를 이어갈 계획이다. //끝//

[붙임1] 대한재활의학회 정책제안식 현장사진

[붙임2] 한국재활치료기관협회·대구치료교육기관연합회 정책협약식 및 지지선언 현장사진

[붙임3] 한국시신경척수염환우회 정책간담회 현장사진

[붙임4] 한국농아인협회 정책간담회 현장사진

[붙임1] 대한재활의학회 정책제안식 현장사진



[붙임2] 한국재활치료기관협회 · 대구치료교육기관연합회 정책협약식 및 지지선언 현장사진



[붙임3] 한국시신경척수염환우회 정책간담회 현장사진



